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Paul H. Shin Publisher
Kun H. Park Editor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 목 차 ****

『권두언』 설 자리를 찾자!

『공 고』 83년도 한인회 정기총회 및
선관위 공고

* 소련만행 꺾기대회

* 광복절 기념행사

* 시애틀·뱅쿠버 친선야유회

* SEA - FAIR PARADE

* 감사의 말씀..... 이 동 립

* 홍정혜 여사에 대한 일언...조 성 욱

『논 단』 부끄러움의 인식과 철학

.....배 동 한

『독자투고』 인 내..... 광 기 섭

만남과 떠남...김 동 진

『수 상』 생의 진리..... 윤 병 설

『시』 무 제 배 동 한

ENGLISH P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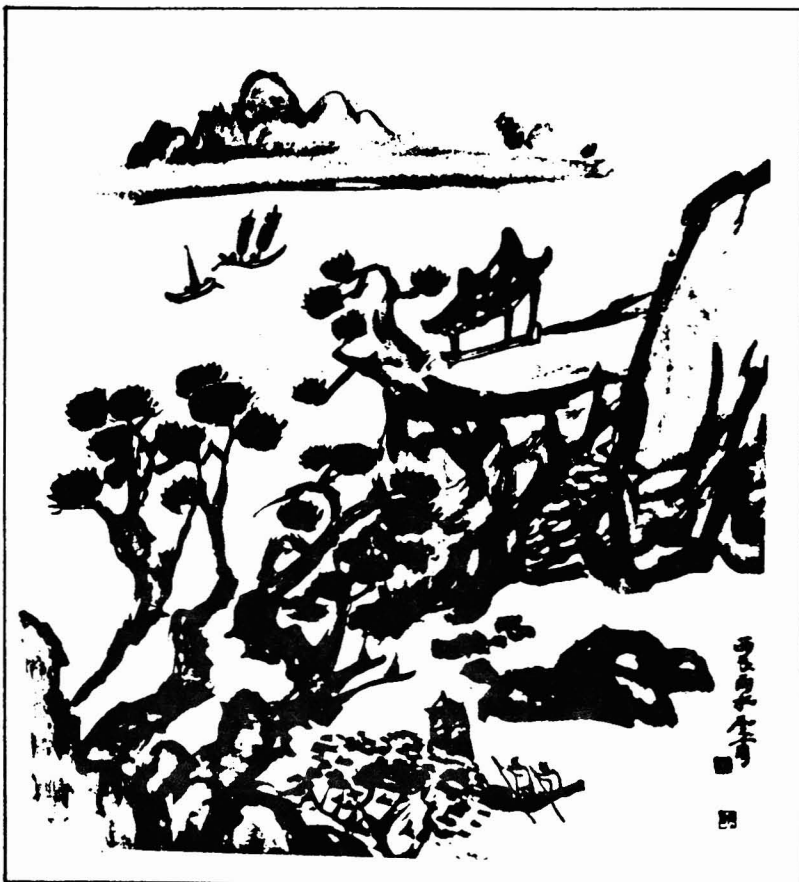
* SUMMER CAMP

* LETTER-FROM TIME MAGAZINE

* TO THE PRESIDENT OF U.S.A -PAULL SHIN

* TO AMBASSADOR OF U.S.S.R. -PAULL SHIN

* TO SECRETARY GENERAL OF U.N. -PAULL SHIN



A Long River, 1976 Kim Ki-chang, Unbo (1913-)

9 September



HANIL KOREAN RESTAURANT

한일각



한국의 정취를 살리며
아담하게 단장된
한국식당

(6월8일 채널 5 아침 9시에 한일각음식 소개되었음)

한일 가족을 찾습니다.

- 호스텔스 0명
- 각테일 웨이트레스 0명

한일각 대표 신 응 호

(시애틀 차이나 타운내)

409 Maynard Ave. So.,
Seattle, WA 98104

(206) 587 - 0464 · 0465

총 회 공 고

본 한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8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할것을
공고 합니다.

일 시 : 1983년 11월 19일 (토) 오후 3시

장 소 : 현 한인회 건물

※ 참고 : 1984년도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세칙에 의하여 총회선서는
오전 10시에 하며 선서후 바로 회장단 선거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거 시행 세칙이 필요하신분은 선거관리 위원장 (한만섭 전화 641 ~ 5739)
또는 한인회 사무실 (전화 362 ~ 4500)로 연락하시면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1983년 9월 일

시애틀-와싱턴주 한인회

회장 신 호 범

공 고

1984년도 시애틀-와싱턴주 한인회 정·부회장및 이사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

1. 입후보 등록기간 : 1983년 10월 15일(토) ~ 10월 29일(토) 오후 7시
2. 입후보등록신청서 배부및접수처 : 시애틀-와싱턴주 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 (한인회)
2611 125TH ST. N. E. (인편으로만 접수함)
SEATTLE, WA. 98125
☎ 362-4500 · 641-5739
3. 투표일시및 장소 : 1983년 11월 19일(토) 오전 10시 ~ 오후 4시까지
시애틀-와싱턴주 한인회사무실
4. 투표인의 자격 (선거권자) : 만 18세이상 회칙 15조에 의한 정회원으로
소정의 회비납부자 (년 일인당 10불)
5. 입후보자의 자격 : 정·부회장및 이사는 선거권자중에서 2년이상 회비및
기부금 납부한자.
6. 입후보자 등록비 : 회장단(회장 1명·부회장 2명) 1000불
각이사(피선 3명) 200불

1983. 9. 13.

시애틀-와싱턴주 한인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한만섭

위원 : 김수정·김영남·곽상영·엄도승

『권두언』

설 자리를 찾자!

업마전 모처럼 모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어린 고모여인이 공항에 내리면서 이렇게 반식하는 소리를 들었다. "한국을 떠나 미국에 돌아오는 동안 그냥 태평양에 빠져버렸으면 하는 생각 뿐이었어요. 한국에서도 살수없고 미국에서도 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미국에 이민온지 5.6년 동안 이민생활에 시달리다가 겨우 말미를 만들어 한국에나가 일가친척과 친구를 만나고 1.2개월만에 돌아오는 길이라 했다. 말도 잘 안통하고 적응하기 어려운 이민 생활을 벗어나 부른 마음으로 고국에 돌아가보니 거기도 그동안 뭣인가 많이 변해서 말도 안통하고 생각도 안통하게 되어버렸으니 그 여인은 자기 가 설자리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저기도 아닌 태평양 한가운데 굳어 버리고 싶었다는 것이었다.

우리 한인교포들 가운데 마음속으로 내가설자리가 없어졌다고 느끼는 사람이 이 여인 뿐만이 아닐것이다. 기대가 컸던 이민 생활은 처음부터 예기치 않았던 고통으로 시작되는 예가 대부분이다. 언어 때문에 받는 타격은 물론이고 미국 사회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에 너무나 이질감을 느끼면서 매사를 한국식으로 사고하고 살아 나가려 할때 부딪치는 벽이 한 둘이 아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질서와 체계가 서있는 미국 사회의 장점을 보게되고 동시에 모국에서의 과거 생활에 많은 부조리와 모순이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비록 현재의 이민 생활이 마음에 굳어진 내그향처럼 마냥 즐겁고 편안안것은 아닐지라도 무엇인가 새로운 차원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는 지혜를 얻게되는 수가 많다. 그럴때 모국을 찾아가보면 향수적인 감상에서 오는 기대와는 달리 무엇인가 잘못된것들이 크게 확대되어 보일지도 모른다. 출세와 영달에 어닐었이 나만하는 이기주의, 돈과 권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를 쓰는 과거 내친구 내친척들을 보고 완연에 빠지기 싫다. 더우기 미국으로 떠 나버린 나를 마치 이방인 처럼 대하는 데서 느끼는 섭섭함이 여기에 가중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모처럼 찾아간 고향이 가까우면서도 먼곳이 되어 버리기가 싫다.

우리는 이런 완연을 자칫 자기부정의 구실로 만드는 성공담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런 완연은 어쩌면 우리자신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변화의 촉진제가 될수 있다. 완연이란 반드시 사는곳을 바꿨기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니며 어느때나 우리에게 엄습할수 있는 삶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다. 다만 우리가 오늘 이 실패에 이민자로서 받는 충격과 그것이 주는 상처는 남들이 맛볼수 없는 독특한 것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크게 다를것 없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들의 세대에서도 또한 우리 자식들의 세대에서도 공감할수 없는 독특한 문제를 안고 살고있는 오늘 현재 우리의 독특한 고통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를 풀어야할 근거가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가 이독특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애걸애나 가려할때 그만큼 우리는 남들이 미처 생각해보지도 못한 개척과 창조와 과업을 이룩하는 데 공헌 했다는 후대의 평가를 받게될 것이다. 실의와 완연을 극복하고 넘어서려 노력하는 우리각자의 노력보다도 공동체의 태두리 안에서 더욱 크게 다져질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의 문제가 어느 한사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성하고 불안정한 우리 한인사회의 틀을 만들고 뼈대를 세우는데 다함께 참여 하면서 그속에서 우리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가 설자리를 찾아야 할것이다. 내가 설장은 내가 찾아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지말자. (K.P.)

한인회 재무보고 (수입지부)

<p>● 한인회비</p> <p>이동립 200 (특별찬조금)</p> <p>김문규 20</p> <p>박경준 100</p> <p>이규명 10</p> <p>김성열 10</p> <p>차현석 20</p> <p>김수정 50</p> <p>윤병설 20</p> <p>이영희 20</p> <p>이기락 20</p> <p>신길범 20</p> <p>진인식 20</p> <p>조재환 10 (부녀)</p> <p>안기혁 30</p> <p>박영희 30</p> <p>J.B정 20</p> <p>조재환 20</p> <p>최금선 15</p> <p>노명재 20</p> <p>이덕기 20</p> <p>김대웅 10</p> <p>김준곤 20</p> <p>심 Paul 20</p> <p>서명호 20</p> <p>허남일 20</p> <p>정문언 20</p> <p>이영호 20</p> <p>김재호 20</p> <p>전영환 30</p> <p>강병철 20</p> <p>박범신 50</p> <p>박건홍 30</p> <p>계 955</p>	<p>● 광고비</p> <p>이 용 호 (Lee's SVC) \$ 60.00</p> <p>이 수 호 (정매인 독창회) \$ 60.00</p> <p>영 미 정 \$ 120.00</p> <p>이 점 태 (Lee's Tire & Auto) \$ 300.00</p> <p>이 형 순 \$ 10.00</p> <p>래 화 과 \$ 60.00</p> <p>조 병 규 치과 \$ 40.00</p> <p>한 일 과 \$ 300.00</p> <p>CLARA DRESS SALON \$ 20.00</p> <p>KOREA TRAVEL \$ 10.00</p> <p>APPOLO TV \$ 120.00</p> <p>ORIENTAL B.B.Q. \$ 40.00</p> <p>AMERICA CULTURAL \$ 100.00</p> <p>DAVID A. EKLAND \$ 50.00</p> <p>Lee's Tire & Auto Svc. \$ 90</p> <p>제일식품 \$ 20</p> <p>정문언보험 \$ 20</p> <p>101 Auto Body \$ 20</p> <p>청도식당 \$ 80</p> <p>오로라선물센타 \$ 40</p> <p>오대양식품 \$ 40</p> <p>장 여행사 \$ 140</p> <p>Lee's Svc.Center \$ 60</p> <p>King T V \$ 50</p> <p>Japan Auto Service \$ 50</p> <p>호박 Antiques \$ 30</p> <p>장미의집 \$ 50</p> <p>조병규치과 \$ 80</p> <p>북경반점 \$ 10</p> <p>아줌마식품 \$ 50</p> <p>그랜드 식품 \$ 90.00</p> <p>등서여행사 \$ 120.00</p> <p>계 2,330</p>	<p>● 경노잔치 찬조금</p> <p>홍인표박사 200</p> <p>신호범회장 200</p> <p>박창식 100</p> <p>청도식당 20</p> <p>계 520</p> <p>● 한글학교 야유회 찬조금</p> <p>오계희 부회장 300</p> <p>계 300</p> <p>● 회관전립기금</p> <p>이청강 50</p> <p>김수잔 100</p> <p>이 현 기 \$ 100.00</p> <p>문 재 만 \$ 40.00</p> <p>계 290</p> <p>● SEA - FAIR 찬조금</p> <p>이현진 25</p> <p>김상철 100</p> <p>김 수 정 \$ 50.00</p> <p>이 등 립 \$ 500.00</p> <p>이 규 명 \$ 10.00</p> <p>이 정 애 \$ 100.00</p> <p>의 명 \$ 100.00</p> <p>(E.W.T.)</p> <p>현 식 노 \$ 500.00</p> <p>신라 무역 \$ 100.00</p> <p>조 성 욱 \$ 200.00</p> <p>신 호 범 \$ 1000.00</p> <p>계 2685</p> <p>● OLYMPIC 후원 회비</p> <p>박 설 봉 \$ 50.00</p> <p>엄 도 승 \$ 50.00</p> <p>오 계 희 \$ 30.00</p> <p>이 정 은 \$ 20.00</p> <p>은 학 덕 \$ 30.00</p> <p>계 180</p>
---	--	--

합계 7,260

배 동 한

잃어버린 체중은 어디에서 찾으시니까?
빠뜨린 이야기는 어느날에 들으니까?
허허한 빈손을 접어 가슴위에 사룬다.

격한 합창 소리 여울 아래 가랴고
물빛고운 여름하늘 높이 높이 솟았거니
보랏고 섰을 밖에는 청산이나 우러르자.

전고한 침묵들이 이역강산 뿌리내려
쉬임없는 역사라는 먼발치에 서게하고
우리의 어진 슬기는 또 다른 침묵이다.



개인이 LYNNWOOD 집을 팝니다

아주 아름답고 깨끗한 10년된집

주소 : 3825 - 170th S. W .
LYNNWOOD , WA

가격 : 8 만 2 천 4 백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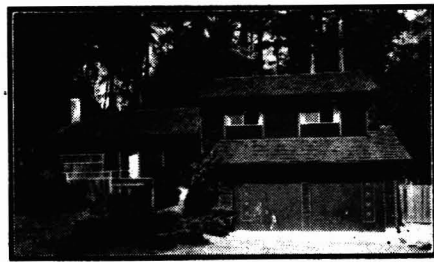
침실 : 3 개

목욕실 : 2 1 / 2 개

지하실 있음

담장있음

문의전화 1 ~ 451 ~ 9578



시애틀 교민 소련 만행 규탄 대회



9월4일 시애틀 교민 약 500명은 시애틀 시내 영사관 건물앞에서 269명의 승객을 태운 KAL 기를 격추시킨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는 켈기대회를 가졌다.

워싱턴주 교역자 협회(회장 김종원목사)의 주관하에 개최된 이 켈기대회에 교민들은 천인공노할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는 갖가지 피켓을 들고 대회장에 나왔다. 수 많은 미국신문 방송보도진이 켈기대회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가운데 켈기대회장 김종원 목사의 대회 개최 취지의 말이 있었고 신호범 한인회장의 영어 규탄사가 있었다. 김목사와 신호범 한인회장은 모두 민간여객기를 격추시켜 269명의 생명을 무참히 학살한 행위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수없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며 공산주의자들만이 제지할수 있는 몸서리 치는 범죄라고 단정하고 무참히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구원과 안식을 빌었다. 신호장은 이러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공산주의 체제에 대하여 안이한 생각을 가지는 일부 상아탑 학자들의 태도는 이런기회에 일소되어야 한다고 외쳤다.

이 켈기대회에서 이영호씨와 한인회 조성욱 총무가 낭독한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는 공개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 해병동지회장 유재인씨와 반공참가자들을 포함한 시민들에 의하여 서명 되었으며 결의문도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다

결의문을 채택한후 참가자들은 피켓을 들고 영사관 주변일대를 행진을 끝으로 켈기대회를 마쳤다.

이날 타코마에서도 오전 10시에 약 300명의 타코마 교민들이 모여 규탄대회를 가졌고 벨링항에서도 다수의 교민들이 모여 소련을 규탄하는 시위가 있었다.



브로디안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련 만행을 규탄하는 신호범 회장



대회 취지를 발표하는 김중원 목사



결의문을 낭독하는 조성복 홍복부장



조국과 동포애로 많은 시민의 피켓과 고민들이 참석한 모습.



조국이 있기에 우리가 견디할수있고, 또거는 동포애의 전율이 부딪히는 경기장소에,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는 고민들.



기자들과 면담하는 신호범 한인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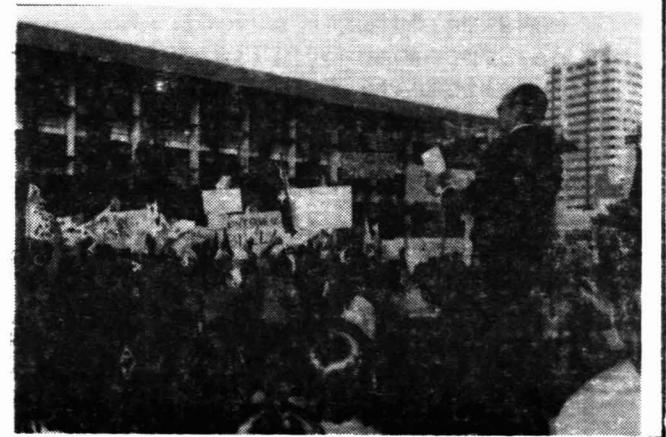
영사관 건물 앞 광장을 메운 시위를 교민들.



피켓을 들고 한인공노할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는 교민들.



규탄사를 청취하며 조국의 영리한 비애와 국력성장을 바램하는 문정들



결기문을 낭독하는 유재인 해병동지회장



태극기와 맑은 고민과 시민들. 또 취재진들의 소련만행에 대한 분개한 모습



UNFAITHFUL STUPID SOVIET RULES 피켓 그리고 분개와 증오를 품은 교민가슴속의 응어리진 피켓



**Seattle-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Seattle-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September 10, 1983

September 10, 1983

The Honorable Ronald Reaga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White House
1600 Pennsylvania Ave.
Washington, D. C. 20500

Ambassador Anatoly F. Dobrynin
Embassy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
1125 16th St. N. W.
Washington, D. C. 20036

Dear President Reag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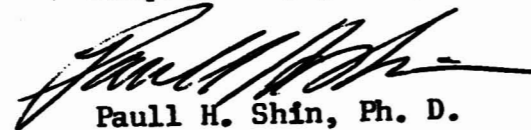
In behalf of Korean-Americans and friends of Koreans residing within Washington State, we wish to thank you for your firm stand against the Soviet Union shooting down of an unarmed Korean Airliner and the killing of 269 innocent human lives. In support of your indefatigable leadership and to express our outrage, we held a mass rally with a petition signed by over 800 people in Seattle on September 5, 1983. We feel this act by the Soviet Union was a deliberate attack ordered by the highest Kremlin hierarchy, in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human decency.

We strongly resent the preposterous charges from Russia accusing the aircraft of being on a spy mission and of Korea being an agent for the United States; we also protest the Russian pilot's presumptuous and false testimony justifying his action. We feel, this crime committed by Russia which they are now trying to justify is not only totally inhumane but also defies explanation.

Mr. President, we recognize your heavy burden in behalf of the well being of the United States and world humanity. We pray that your position concerning the Korean Airliner will not be swayed by Soviet hypocrisy or so called pro-communist liberal thinkers. Only by your able and resolute leadership in such an international tragedy can we recover and sustain world wide freedom and peace.

Thank you again for your great leadership. We pray for the Lord's blessings in your every endeavors.

Respectfully yours,



Paul H. Shin, Ph. D.
Presid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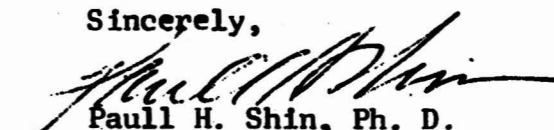
Dear Ambassador Dobrynin:

In behalf of the Korean-Americans and friends of Koreans residing within Washington State, we wish to register a strong protest against your government for shooting down an unarmed civilian Korean Airliner and murdering 269 innocent human lives. We feel your action was premeditated murder committed in the highest levels of the Soviet hierarchy, in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defies any reasonable explanation. In protest, we stayed a mass rally in Seattle, Washington on September 5, 1983 with a petition signed by over 800 people.

We are also appalled by the charges, often outright lies by your government accusing the Korean aircraft of being on a spy mission over your territory and the Republic of Korea of being an agent of the United States. It is most preposterous. We also reject the hypocritical testimony by your pilot justifying the killing of innocent human lives. May we remind you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an agent of the United States but a sovereign nation striv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world peace. May we also remind you that the more you try to justify your barbaric act, the more it becomes a revolting and repulsive matter in international communities.

Mr. Ambassador, we do realize you are only an employee of the Moscow hierarchy and perhaps innocent of this serious crime against humanity. May we wish, however, that you consider petition seriously and become an instrument in convincing your government to accept its guilty verdict, apologize and promise never to act in such a deplorable way again.

Sincerely,



Paul H. Shin, Ph. D.
president



September 10, 1983

The Honorable Javier Perez deCuellar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Plaza
New Yor, N. Y. 10017

Dear Mr. Secretary General:

We, Korean-Americans and friends of Koreans residing within Washington State, held a mass rally to protest the Soviet Union shooting down of an unarmed civilian Korean Airliner and the killing of 269 innocent human lives. We feel this was a deliberate attack order by the highest Kremlin hierarchy, in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Such an attack by the Soviets represents the lowest form of barbarism and defies any reasonable explanation.

We are also appalled by the preposterous charges by Soviets which accuse the Korean aircraft of being on a spy miss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of being an agent for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he hypocritical testimony by a Russian pilot justifying his killing of so many innocent lives. Considering the facts, we feel the attack was premediated murder by the Soviet dictatorship.

Mr. Secretary General, we recognize your heavy burden in behalf of the United Nations and world humanity. We sincerely hope that you can pursue a course of action, condemning and punishing Russia for thier crime against humanity. May we also hope that you will not be swayed by Soviet propaganda for we believe world stability and freedom depends on your firm stand on this crucial issue. We pray that you will consider the pleas of these signators on this petition in your decision making.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ncern in our behalf.

Most sincerely yours,

Paul H. Shin, Ph. D.
president

『한인회 활동』

SEA FAIR PARADE에

한인회 팀 참가

8월 5일에 개최된 올해 시애틀 축제 행렬(Seafair parade)에 시애틀 한인회팀이 참가하여 시민들의 인기를 끌고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행렬에 한인회팀은 농악대 45명, 태권도 35명, 해병동지회 기수 4명, 일반고포 다수등 총 약 100여명으로 구성되었는데 특히 농악 대원들이 착용한 갖가지 천연색 의상과 다양한 율동과 이색적인 음악이 관중들의 집중적인 시선을 끌었다. 연례적으로 시애틀 Seafair parade에 중국계, 필리핀계가 참여하여 동양적인 색채를 가미해 왔었는데 이번 한국농악대의 출현은 이와도 완전히 색다른 한국 고유의 민족예술을 사실상 처음으로 일반대중에게 소개하는 기회가 되어 한인들의 이미지를 심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것으로 평가되었다.

태권도 팀도 모두 도복을 입고 씩씩한 모습으로 표기를 연출하여 행렬하는 동안 도로 연변의 관중들에게서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태권도팀은 한인회 및 미국인 청소년들로 거의 같은 비율로 구성되었어 한국 무예가 미국사회에 활발히 확대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도 되었다.

이번 Seafair parade에 참가한 총 109개팀중 한국팀은 B조 6번으로 15번째 행렬에 들어갔는데 한국팀 선두에도 단정한 제복을 착용한 워싱턴주 해병동지회원 4명이 해국기악 성조기를 나란히 들고 모두 당당히 행진하여 한인들이 미국사회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행사를 위하여 한인회에서도 무용가 르메드일 및 조여사의 지도로 행사전 4-5주간 농악대형을 집중적으로 연습시켰으며 많은 의상을 준비하는데 한인회 이사 임원 및 일반고포 부인들이 손수 밤새우며 재단 재봉을 하는 열성과 단합을 보였다.

한인회의 연기를 되도록 완벽하게 하기위하여 한인회에서 농악전문가 4인조를 나성에서 초청하여 머리 돌리기등의 특출한 표기를 시애틀 시민들에게 선보이도록 하였다.

밤 7시부터 시작된 이 parade는 시애틀 시내에서 출발하여 경점까지 4 마일 계속 되었는데 한인회의 연기와 행렬모습은 다른 어느팀보다도 현지중계 TV 방송 화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소개한 것도 특징이 있다.

올해 Seafair parade에 한인회팀이 참가한것은 1978년 한국해군 외장대 방문시 한인회가 참가한 이후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다.

광복절 기념행사 업무

올해 제 38회를 맞은 광복절 기념행사는 8월 14일 오후 7시 30분 시애틀 동북부 Pinehurst Elementary School에서 고민 3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기념식은 한인회 총무 조성욱씨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신호범 총회장의 기념사에 이어 이문수 총영사의 기념사, 박부열 영사에 의한 전투환 대통령 의 광복절 기념 특별 메시지 대독, 김병섭 장노의 축사 및 2명의 고모학생에 대한 한국정부의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신호범 한인회장은 기념사에서 일본인과 한국사람을 비교하면서 한국인은 어디에 있던지 누가 보더라도 개인능력이 뛰어나고 우수한 민족임을 자랑할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보다 못한 일본인들의 단결심을 따라가지 못하는것이 섭섭한일이라고 말하며 고민사회의 단합을 역설하였다.

이문수 총영사도 8.15 광복이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장구하고 끈질긴 독립투쟁의 열매였음을 상기시키며 현재 우리는 국외의 남북 분단이라는 역사적 시련속에서 진정한 조국광복은 미완성의 상태에 있다고 견제하고, 이시련을 극복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국권상실이 재발되어서는 안되는 일임으로 국권을 견고히 하는일에 해외고포들도 민족의 이름으로 핵심 협력해 줄것을 호소했다.

김병섭 장노도 같은 요저로 현하 조국의 분단이 5천년 문화민족의 수치를 저격하고 광복절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의 독선과 아집을 극복할수 있도록 고민들이 합심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광복절 기념식은 김동순 장노의 만세 삼창으로 끝났다. 기념식을 마친후 고민들은 한인회에서 마련한 다과회에 참석하여 담소를 나누고 곧이어 8시 30분부터 같은 장소에서 상영된 국영화 "머꾸기도 밤에 우는가"를 감상하고 돌아갔다.

『공 고』

한인회 회칙 제 4장 19조에 의거 1984년도 시애틀·워싱턴주 한인회장단 및 이사 선거를 위한 관리위원을 아래와 같이 위촉 하였기에 공고함.

선거관리 위원장: 한 만 섭

위원총무: 김 영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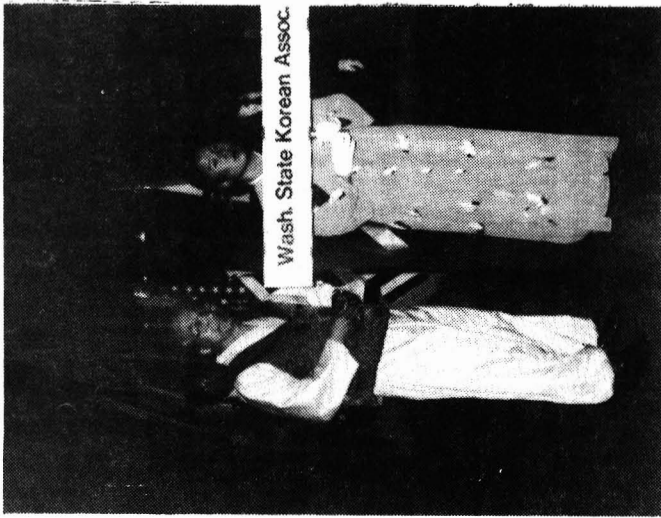
위 원: 김 수 정

// : 광 상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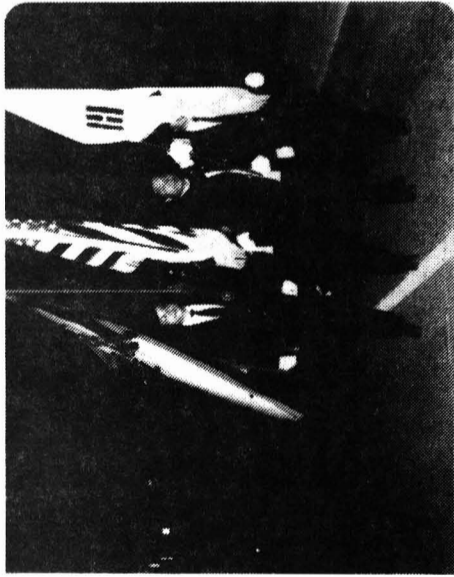
// : 엄 도 승

1983년 9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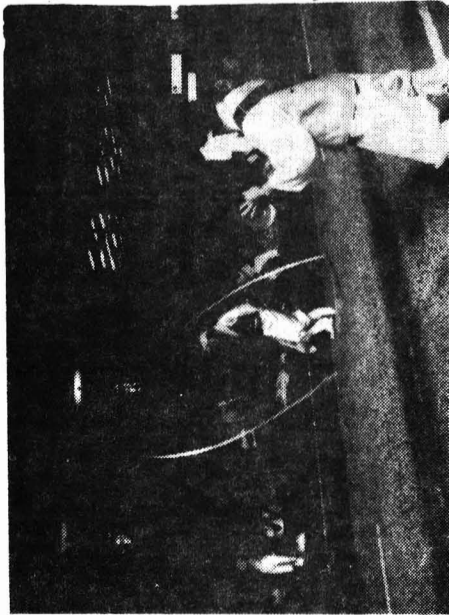
시애틀·워싱턴주 한인회 이사장이 동 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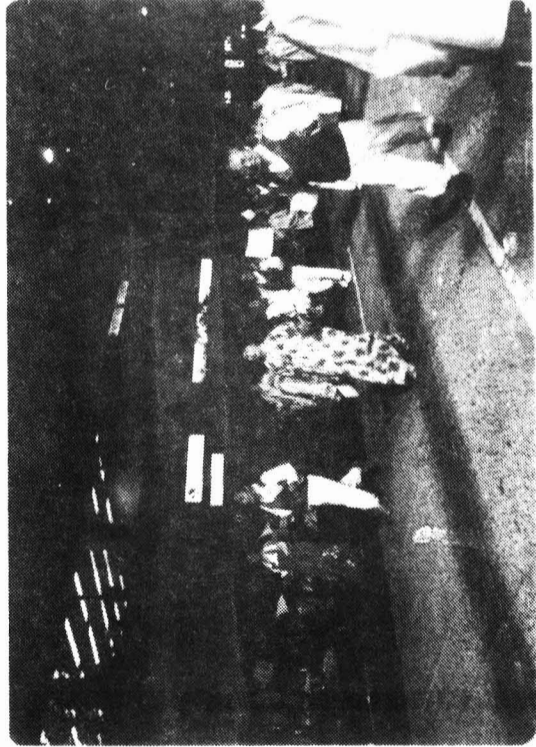
Wash. State Korean Asso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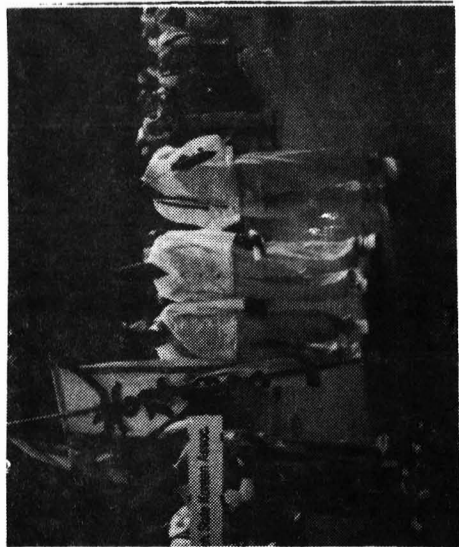
단정한 재복을 착용한 위성동숙 해병동지휘원
수령이 대곡기와 성조기를 들고 댄스대행히
행진하는 선주의 모습



노장대의 모기에 공미롭게
바라보는 시민들.....



신로법회장, 이동림 이사장을 배롱한 교도들의 행진



황인희 임원들의 한복차림

『교포사회 동정』

전 미국 한인교포 사회를 상대로 영자신문 Koreatown 을 발간하고 있으며 Sacramento Union 지의 중견기자도 활약하고 있는 이경원 기자가 8월 25일 이곳을 방문, 시애틀센터에서 개최된 American Legion 전국총회가 수여하는 최고 언론인상을 받고 돌아왔다.

이경원 기자가 이번에 받은 영예는 미전국 및 캐나다 지역에 포괄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 American Legion이 매년 미국내 신문 잡지분야에 우수 보도 기사를 심사하여 선정한 최우수 기자 작성자에게 주는 Fourth Estate award 이다. 이 기자는 지난 4월 Sacramento Union 지에 odd partners in crime 이라는 미국 사회보장 보장금 제도의 흑막과 비리를 파헤치는 폭도 기사를 12회 연재 하여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물론 메인권 행정부에 까지 이목을 끌었으며 현재 이 기사의 내용물 로 대로 사회보장제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American Legion 은 전여명의 후보자들 가운데 이경원 기자를 선정하여 이 상을 주었다.

이날 시상식은 American Legion 전국 대표 자 5000여명 이 참석한 시애틀 센터(Sewell Centre) 에서 총회장에 의하여 주관 수어되었다.

이경원 기자는 odd partners in crimes 기사를 가지고 올해 National Headliners club award 등 다른 유명 언론인 상을 3개나 이미 받은 바 있다. 미국에서 30년의 일선 기자활동을 해온 이경원씨도 지금까지 유명 언론인 상만 30여개를 받아왔다.

지난 수년동안 이경수 사건 및 미주 한인 교포사회 문제에 관한 광언자 394차 시애틀을 방문한 바 있는 이경원 기자는 금번 방문시 총연사, 신로법회회장, 박연추 상공회의소 소장 및 이지역 언론인들을 만나 시국에 관한 담소를 나누고 돌아갔다.

시애틀 - 뱅쿠버 교민합동 야유회 및 체육대회 성료

시애틀-뱅크버(카나다) 교민사회간의 합동 연례 행사인 올 해 시애틀-뱅크버 합동야유회 및 체육대회는 예전대로 8월 27일 시애틀의 우드랜드 파에서 개최되어 체육대회를 통한 양지역 교민들간의 친교와 단합을 다시 한번 진작 시키고 즐겁게 끝났다.

이날 오전 11시에 예전 가도 시작된 기념식은 뱅쿠버 한인회의 총회장과 시애틀 한인회의 신회장의 개최사 학 이문수 총연사의 축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오후 2시까지 자유점심시간을 가지며 양지역 교민들 이 서로 친교를 나누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게임에는 양측 선수들이 80명 이상 참가하여 컷치볼을 선두로 씨름, 줄타리기, 보물찾기, 과자 따먹기 등의 경연을 벌였고 육구경기 를 마지막으로 오후 6시 30분에 폐막되었다.

이날 체육대회에서 특히 이목을 끌었던 경기는 씨름 이었는데 뱅쿠버의 손진규씨가 장사상을 획득하여 송아지 대신 상품으로 증정된 산 갈아지를 수상하였다. 또 재미있던 게임중 보물찾기, 줄타리기, 과자 따먹기에는 3세 아동부터 어른까지 참여하여 북오와 박수 를 자아내게 하였다.

올해 시애틀 뱅쿠버 체육대회의 총전적은 175대 25 로 시애틀이 대승을 거두어 다시한번 시애틀 교민들 의 심력을 과시하는 기회가 되었다.

『한인회 활동』

금년도 한인회장단이 신청한 Boeing Neighborhood Fund 가 그동안 어려운 심사과정을 거쳐 지난 9월 2일 승인되어 한인회가 요청한 복사기, 한인학교 어린이용 책상 의자 등 총 \$9,500.00 상당의 보조금 을 받을 것이 확실해졌다.

이 보조금은 Boeing 회사에서 대인사회사업 일환 으로 비영리단체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인데 신로법 한인회장, 조영숙 총무부장을 금년도 한인회장단임 은 년초에 이를 신청하여 그동안 United Way-King County 의 각부심사를 받아 승인되었다.

앞으로 한인회에서도 필요한 사무용품 및 비용 영세를 제출하면 Boeing 회사의 최종 심사를 거쳐 10월 말까지 보조금이 지불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조금으로 한인회 사무실에 복사기가 마련되면 11월 이후부터는 필요한 교민들에게 업무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봉사할 예정이다.

10차에 걸친 이사 임원회

6월에서 8월 까지

각종행사 토의를 위하여

한인회는 지난 6월부터 8월말까지 연이은 행사 준비 및 진행을 위하여 10여차례 걸친 임원회 및 이사·임원 공동회를 가졌다. 이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다음과 같다.

1. Seafair parade 참가준비 문제
2. 광복절 행사준비 문제
3. 8.27.시애틀-뱅크버 교민합동야유회 및 체육대회 준비
4. 한인회 예산 조정
5. 한인회보 광고비 수급 문제
6. 한인회 정기총회 준비
7. 아미람 밥 계획 준비

감사의 말씀

한인회보 금년 5월호의 한인회관 건립기금 모금 을 위한 호소문을 읽고서고 물심양면으로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마음 그대로를 두서없이 엮어 다보니 너무 길어서 고포들께서 혹시 읽다가 그만두시거나 읽을까하는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많은 고포들께서 격려성원에 주신데 대한 고마움을 글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고포들은 단순히 한인회 이사장으로서가 아니고 한 고포로서 고포를 위한 솔직한 심정을 표현하고 저 한 개인이었으므로 저의 마음은 누가 우리한인 사회를 이끌고 가던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한인회에서는 지금 많은 분들의 상호협조로 우리가 염원하고 있는 많은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우리 모두의 소망인 한인회관 건립만은 거북이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이라도 자기 스스로와 이고장 한인사회에 좀더 관심을 두고 여러분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다만 몇분씩이라도 "헌납" 하여 주셔서 한인회관 모금 운동에 참여만 하여 주신다면 거북이 걸음도 곧 도기걸음으로 바뀔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성을 합하여 이룩한 회관은 항상 보람되고 단합된 고포사회의 힘이며 따뜻하고 으뭇한 우리 마음의 상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포 모두의 협조없이 어느 독지가나 특정단체의 도움만으로

한인회 이사장이 동림



이룩된다면, 결국 그런 한인회관은 어느 한정된 사람들의 재력에 의하여 건축될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전 고포사회의 건물이라고 뱃뱃이 내세우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여하는 고포 여러분!

같은 조상의 "뿌리와 핏줄"을 가진 나 자신과 우리들의 고민사회를 위하여 우리 다같이 이 과업에 자진 참여하여 우리의 숙원을 우리모두 함께 이룩하여 봅시다. 그리하여 대내적으로는 "사랑, 단합, 봉사"의 정신으로 늘 우리가 단결할 수 있음을, 대외적으로는 한인사회가 합심협력하여 선진 국민다운 긍지를, 그리고 우리들의 자랑스럽게 "동진"과 야망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한인회에서는 한인회관 건립기금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단 돈 한푼, 두푼씩이라도 정성이면 여러분의 "성의"와 "참여"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여러분의 격려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 있으시기를 심심 부락드리고, 고포 여러분 가정마다 언제나 흥만한 사랑과 건강, 그리고 변명이 항상 같이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의 한인회관이 곧 실현되기를 다시한번 빌면서...

제 9차 이사 임원공동회의

7월 29일 오후 8시부터 약 4 시간동안 계속된 제 9차 이사 임원공동회의에서는 주로 Seafair parade 참가를 위한 농약, 해견도, 어린이동원 및 프로그램 내용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분담된 과업은 다음과 같다.

- 농약림 구성 및 훈련 : 허권 홍보부장
- 해견도 림 구성 및 연습 : 이신남 체육부장
- 어린이 동원 및 예행연습 : 백경숙 교육부장

제 9차 이사 임원 공동회의에서는 또한 83년도 한인회 예산 문제가 논의되고 예산규모가 재조정되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행 사 명	조정된 금액
어린이날 행사	\$500.00
Seafair parade	\$1,500.00
시애틀-벙쿠버체육대회	\$2,000.00
강북절 행사	\$300.00
경노회 행사	\$1,000.00
총회 및 선거	800.00

아미망의 밤	\$1,000.00
전 화 표	\$280.00

조정된 예산규모 1983년도 총액: \$24,560.00
(어린이날 이전행사 포함)

김 옥 부영사 이임
주 시애틀 총영사관에서 2년 6개월 동안 근무했던 김 옥 부영사가 지난 9월 30일부로 본부 외무부 본국으로 발령 받아 이임했다.



ACE AUTO BODY
USED CAR SALE.BUY & TRADE



- ※ 무료 TOWING
- ※ 국내차 외제차 책임수리
- ※ 각종 중고차 사고 팝니다.
- ※ 보험 수리 전문
- ※ 20여년의 경험
- ※ 최신 FRAME MACHINE
- ※ COMPLETE PAINT WORK

- * AUTO SOUND SYSTEM INSULATION
- * CUSTOM BODY & PAINT
- * AUTO GLASS REPLAC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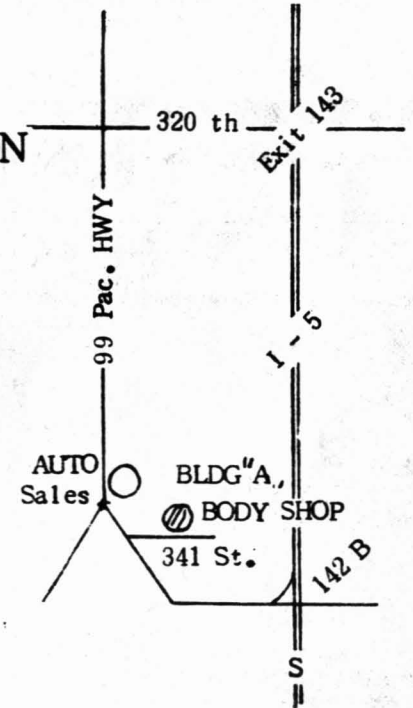
※ FREE ESTMATE (무료견적)

보험수리 상담환영

B: 838-1310
R: 839-7346

송 풍 언

1626 341st. PL. So.
Spectrum Bussines Park #A
Federal way WA. 98003



꽃은마음의 傳達

병원 결혼식 개업 약혼 각종파티
장례식의 꽃등을 전화주문으로
원하시는곳에 보내드립니다.



스튜디오 꽃집
THE FLOWER STUDIO
4222 EAST MADISON
SEATTLE, WA 98112
(B) 325 - 5032 (H) 367 - 1534

리스 서비스 센터

- 각종 가정용 및 사업용냉동기, 냉장고, 세탁기, 오븐 및 전기용품 일질수리.
- 용접(전기, 산소)
- Wood Stove 제작및수리
- Maintenance Contract 24시간 서비스

Mark W. Lee
이용호

771-5728
4104-219th S.W.
Mountlake Terrace, WA 98043

김 목 공 소

● 신축 ● 증축 ● 수리 ● 실내장식

- 크고 적은 일을 막론하고 성심 성의껏 무료로 상담하여 드리웁고
- 거리제한 없이 무료로 견적하오며 ※ 최신형 공구및 장비
- 언제라도 전화문의 환영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드립니다


771-8019

소문난 김 대 진 목수

3825-191st S.W., Lynnwood, WA 98036

NORTHWEST ORIENT



미국입국환영
(美國의 移民入國法)



We give you the best of America

NEW PUBLICATIONS NOW AVAILABLE

New Book on U.S. Immigration Laws In Korean Language
Prepared by Dan P. Danilov, Esquire
Translated by Mr. Kun H. Park
Published In Korea by Northwest Orient Airlines
대니로브저 박건홍 번역

* 『미국 입국 환영』 (미국의 이민 입국법)
* 『미국 이민법에 관한 일반안내』
* 무료배부

Also Available:
"General Information About United States Immigration Laws"
In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y Dan P. Danilov, B.A., J.D.
Available **FREE** From LAW OFFICES OF DAN P. DANILOV
3108 Rainier Bank Tower - Seattle, Washington 98101 Tel: (206) 624-1580

청도식당

TSING TAO

◎순한국식중화요리전문
◎수타국수, 칵테일완비

영업시간

화-목 : 12:00 - 10:00 PM
금-토 : 12:00 - 11:00 PM
일 : 1:00 PM - 10:00 PM
월 : 휴일

전화 367-9339

13744 AURORA AVE. N.
SEATTLE, WA

이영주 치과

타코마 지역 581-1412

진료일시 화, 목, 토(아침9시~6시)
진료장소 Sun Plaza Suite #10
10209 Bridgeport Way SW
Tacoma, WA 98419

시애틀 지역 775-3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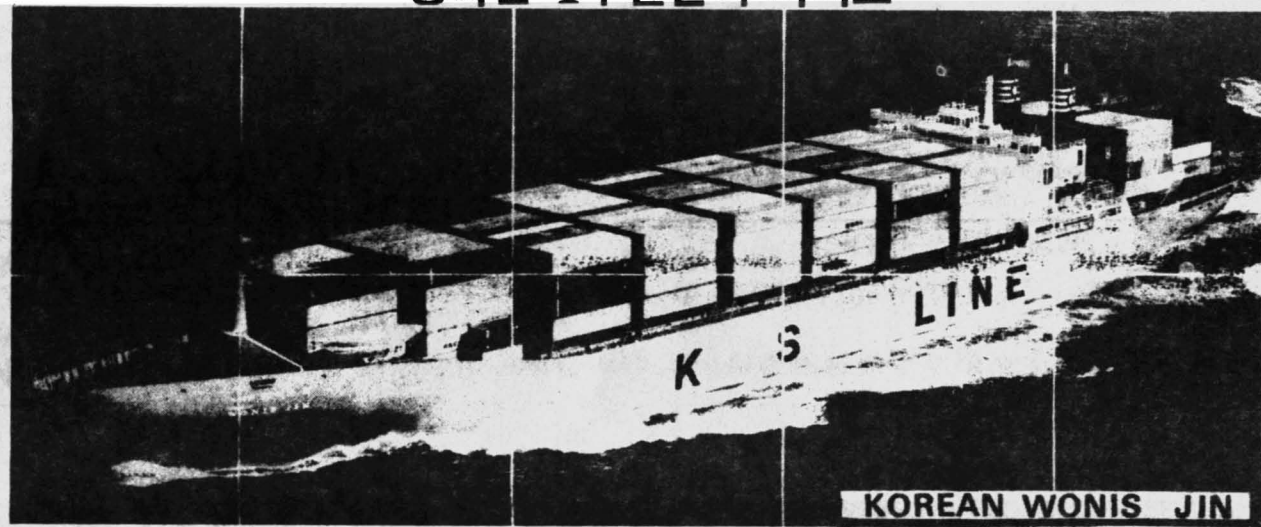
진료일시 월, 금(아침9시~6시)
수(밤12시~자정9시)
진료장소 Stevens Dental Center
20728 - 76th Ave W.
Edmonds, 98020

한국해운의 기수

K.S. LINE

미주항로 최대의 18척 운항개시

—정확한 1주일간격 서비스—



32년 역사를 가진 국적선사 K. S. LINE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금년 5월부터 기존 극동·미동해안 항로를 11척 선대로 대폭증가하고 극동·미 서해안 전역을 6일 간격으로 서비스하는 서해안 특별 서비스를 개설하여 총 18척의 태평양항로 최대의 선대로 하주 여러분께 편의를 제공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전의 협조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극동및 미서해안 특급서비스

- 투입선박수 : 풀 컨테이너선 7척
- 항 차 간격 : 6일
- 부산·시애틀항해일수 : 17일
- 기항지 : 한국·일본·대만·홍콩·동남아전역
미서해안전역·중서부및 GULF 지역

극동및 미동해안 서비스

- 투입선박수 : 풀컨테이너선 11척
- 항 차 간격 : 7일
- 부산·뉴욕항해일수 : 27일
- 기항지 : 한국·일본·대만·홍콩·동남아전역
미동해안및 EAST CANADA 전역



大韓船洲(株)

KOREA SHIPPING CORPORATION

2121 4th Ave. #1520 SEATTLE, WA 98121

(206) 625 1960

『 교포 상공인 및 교민 고려무역을 통한 본국 무역 기회 확대 』



박영규

대한무역진흥공사는 금년 2월 정부결정에 따라 한국 종합전시장의 인수와 (주)고려무역의 경영권을 인수한 바 있다. 특히 (주)고려무역의 인수는 중소기업제품의 수출을 보다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의 방안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지원방법으로는 공사의 해외 창구인 전세계 86개 무역관을 통하여 그간 중소기업제품에 간접적으로만 지원하던 체제를 직접지원 내지 적극 지원으로 계약과 연계시킬수 있도록 주력한 점에 있다.

고려무역은 1969년 정부가 주도한 한국의 10대 종합 무역상사중의 하나로 14년전에 설립되어 계속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되어 오고 있으며, 여타 종합무역상사와는 달리 중소기업제품의 수출지원에 전력을 경주해온 상사로서 중소기업제품 대행 수출액이 연간 약 8천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고려무역이 취급하는 품목은 비단 중소기업형 제품인 공예품, 완구, 낙시용품등 수많은 잡화제품뿐만 아니라

중화학제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상으로부터 주문량이 적어 일부 메이커측에서 수출을 기피하는 소액주문까지도 수주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강력한 수출지원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미서북부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본국과의 교역을 원하는 교포무역인 및 상공인뿐만 아니라 일반교포까지도 언제든지 고려무역을 통하여 교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애틀 무역관은 업무체제를 갖추어 놓고 있다. 특히 본국 수출업체에서 소액 주문이 그때문에 주문을 기피당하는 교포업체나 본국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으나 제반적으로 원활하게 해결 및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와, 무역경험은 없으나 소액 주문을 발판으로하여 사업개시를 원하는 교포업체 및 교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거래알선 및 정보제공을 하고있으니 보다 많은 활용있기를 바라고 있다.

(연락처 : 시애틀무역관 전화 : 623-3558/9)

귀사의 사업 번창을 위한 (주) 고려무역은 본국과의 무역을 희망하는 교포 상공인 및 교민 여러분의 주문을 보다신속 성실하게 봉사해 드립니다



상세한 문의는

시애틀 무역관으로

KOREA TRADE CENTER - SEATTLE

THE TRADE PROMOTION AGENC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UITE 1245, THE BANK OF CALIFORNIA CENTER, SEATTLE, WASHINGTON 98164

CABLE ADDRESS: "MOOGONG" • TEL: (206) 623-3558 • TELEX: 32-0049

644-1915

『홍정혜 여사에 대한 일언』

(현 시애틀 주재 이문수 총영사 영부인)

본인은 공식적인 모임에서의 사적인 모임에서 홍여사를 몇차례 만났고 대화를 나누어 본적도 있다. 조그마한 제구에 언젠가라도 별로 많이었고 조용한 인상을 풍기는 분이 화려한 옷차림도 언젠고 그분에게 없고 약간 주름진 얼굴에 언젠고 화장이란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분이시다. 한마디로 외교관이란 직책으로 통분서주하는 남편의 뒤에서 묵묵히 내조에 충실한 순수한 한국적 가정부인이며 1남 2녀를 손아래 두고 그들의 뒷바라지에 정성을 바치는 50대의 인자한 어머니이시다.

서울에서 명문외과 대학을 졸업하신 홍영사는 여가들 이용하여 이젠과 붓으로 화복에 서양화를 담은 의미를 가진, 그림에 대단히 조예가 깊은 미술가이기도 하다. 본인의 작품으로 직접 공관을 실내장식하는 정도의 수준을 갖고 계시다.

나는 우연히도 79년도에 시애틀 총영사관의 설립 당시부터 몇분의 외교관들과 이젠과 대학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경험을 통하여 외교관들은 물론 외교관을 남편으로 두고 있는 부인들의 고충(표현이 지나칠런지는 모르지만)을 그런대로 본인 나름대로 느끼고 있었던중, 금년 한인회의 총무직을 맡고 예년 보다는 좀 많다고 할수 있는 몇가지 행사들 수행해보는 가운데 그 어느때의 외교관 부인보다 꾸밈없는 순수한 홍여사와 그분이 총영사부인으로서 고조사회에 표시하는 이해와 협조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존경심이 우러나오는것을 느낀다.

지난 6월 Northgate Shopping Mall 에서 3일간 개최되었던 N.W. Ethnic Festival에 한인회가 참여하여 고조사회의 뜻있는 부인들의 협조로 한국음식을 직접 만들어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결과 성공적으로 끝내어 많은 참가국중에서도 우리한국이 3위라는 영예를 차지하였다. 이때에도 홍영사께서는 자정하여 이곳 시애틀에 주재하는 몇몇공관원들의 부인을 직접 동원하여 공관 자택에서 밤늦게까지 직접 불고기를 장만, 다음날에는 Shopping Mall 에 직접 참여하시어 앞시마를 두드시고 50대의 부인답지않게 아무종 일을 자리에 한번 안지않고 묵묵한 자세로 몇백명분의 불고기를 굽는 자세를 보이시며 조급도 피로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그분의 태도와 정신에 존경심과 아울러 놀라움을 갖지않을수 없었다.

한인회 총무 조성욱



또한 지난번 시애틀시에서 연례적으로 주최하는 Seafair parade 에 참가했던 한인회에서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50여명의 한국 풍속적 무용팀을 이곳 시애틀 시민에게 보여주려는 본 한인회의 목적에 물든 재정적인 어려움은 말할것 없겠지만, 이 150여명을 연습, 여행하는 번거로움과 고전무용에 아무런 경력도 없는 150여명을 교육시키는 과정에서도 몇분의 전문가의 고풍도 누구보다도 실감했던 본인에게는 눈물겨운 일이 있었다. 그러나 단지 이것뿐만은 아니었고 이 150여명의 출연자를 네기회에서는 30여명의 반복(남자용)이 필요했고 결국은 본 한인회에서는 몇몇 여자분들의 협조로 옷감을 사다 재단, 재봉, 다림질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거침으로서 겨우 그런대로 준비를 완료하게 되었다.

이기관중 한인회에서는 짧은시간제한과 싸워야만 했고, 그러므로 여자분들의 많은 동원이 필요했다. 이때에도 홍여사는 연안미공관에서 쉬고 계시지는 않았다. 직접 재봉을 머리를 들고 뜻하지 않게 한인회에 나타나시어 밥상을 하시며 재봉을 하여주시었고 다림질을 하셨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혼자 있으시어 여건이 목록부담 재봉을 하시는 50대의 외교관 부인을 보는 주위의 사람들의 자세가 경건만 하다면은 이러한 표현은 그분에게 100분지 1도 어림도 없는 표현이었다. 어느날 저녁 재봉을 끝내시고 자정이 넘어 귀가하시려던 홍여사는 봉우에 넣은 일감을 한인회에 건네주시며 부탁하시는 말씀이 "총영사님께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말아주세요, 가비에서 할당하는것입니다."라는 홍여사의 부탁을 들을때 그 금액이 많고 직업을 알기전에 솟구치는 감격을 무엇으로 표현할일이 없었다.

처음으로 느낀 "외교관 부인"에게서 받은 이 아름다운 인상과 미담을 본자의 마음속에만 묻고 있을수 없이 고조 여러분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견딜수 없는 나의 느낌을 손서없이 표현했음을 재삼 말씀드린다. 마음씨 고운 홍여사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있기를 진심된 마음으로 기원한다.

『논단』

부끄러움의 인식과 철학



배동한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동물은 인간 말고는 없다" 라고 하면 새삼스럽게 그 점을 수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모든 행동이 일차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서만 행하여지는 동물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죄라는 개념이 있을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도 없다. 바로 이점에서 인간과 동물이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며 이점이 인간의 존엄성이자 동시에 고등스런 속명이기도 하다.

그러면 왜 인간은 그러한 짐스러운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을 가지는 것일까? 같은 인간이라도 유아는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잘 느끼지 못한다. 어린 아이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건 어떤 상태에 있건 전혀 부끄러움을 모른다. 있는 것이라곤 오로지 쾌, 불쾌에 대한 감각과 일차적인 욕구뿐이다. 배고프면 울고 기분 좋으면 웃는다. 두툼한 기저귀를 차고도 천하태평이며 빨가뻐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우리는 이것을 "어린이는 천진난만하다"고 표현한다. 천진난만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의식(自意識)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들에게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하는 자신을 껴체화 시키는 의식의 능력이 아직 미분화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남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때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자유스러울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잘알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도 좋은 유아기를 벗어나 대상에 대한 지각이 싹들때부터 부끄러움부터, 스승으로부터, 더 나아가서는 책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지켜야 할 무수한 규범과 모랄을 부여받으며 자기 스스로의 사고에 의한 이상향을 품게된다. 그런데 인간이 이런식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모든 제약과 행동원리를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실천에 옮길수만 있다면 죄의식이라거나 수치심같은 것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는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한계조건 즉 하나의 생명체는 존재로서 생명을 존속시키기 위한 식육과 종족번식을 위한 성욕같은 일차적인 욕구뿐 아니라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나 다른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욕망등 2,3차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무수한 욕망은 어떤 한개인만의 욕구가 아니고 모든인간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려는 과정에서 남과의 충돌은 거의 필연적이랄 할수 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성적인 해결이 곧 우리가 모랄이니 도덕이니 하고 푸르는 사회규범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 본연의 자아완성 추구와 모랄의 수행에 있어서 실패했을 때 다시 말하면 양심과 행동규범에 의하여 자신의 본능적인 충동이 효과적으로 억제되거나 승화되지 않고 드러났을 때 느끼는 자신의 일동에 대한 자각과 자기반성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자기의 자각이 없는 동물에서는 부끄러움이 있을리 없고, 전전능하기에 과오를 범하지 않는 신에게는 부끄러움이 생길리 만무하다. 부끄러움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인간적인 표시이요, 인간적인 생활에 본질적인 속성이다.

그러나 부끄러움이 극히 인간적인 원시감정이라 하더라도 유쾌한 감정은 아니다. 그것은 자기의 치부를 남에게 드러내는 창피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의 약점을 백일하에 노출시키는 것은 자존심을 몹시 건드리는 체면을 깎는 일이기 때문에 몹시도 기분 언짢은 일이다. 부끄러운 일에는 항상 그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후회와 그들 하고야만 자기행동에 대한 회한이 있고 자기혐오가 있다. 창피하다는 것은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자기소행에 대한 후회도 있거나 자기소행을 비난하고 창피를 주는 남에대한 원한도 갖게 된다. 이원한을 품을수 있다는 가능성이 순수한 내면적인 참회에도 이끄는 죄의식과 크게 다른 점이다.

자기의 내면적인 약점으로 해서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기 쉬우면 식을수록 외면적으로는 예의바르게 행동하고 체면을 지키고서 창피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상정이다. 그러한 인간의 상정에서 형성된 소위 체면문화, 또는 창피문화가 바로 우리의 동양 문화 내지는 한국문화의 특징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서양문화는 죄의 문화로 보는데 죄의문화가 인간의 어쩔수없는 내면적인 죄의 자각아래 신의 계율을 지키는 선행을 기구로 하는 문화인데 반하여 체면문화는 남의 이목이라고 하는 외면적인 강제력에 의하여 선행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는다. 즉 죄의 문화에 있어서는 그 누구하나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자기가 자기양심에 비추어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 죄도 인해서 스스로 고민하지만 체면문화에 있어서는 그보다는

남이 자기의 잘못된 소행을 본 것이 크게 문제되고 그 남의 비평이 나쁠가 더 고민한다. 따라서 스스로의 죄의식에 고민하느니 보다는 자기의 비행으로 자기의 사회적인 위신이 떨어질까를 더 염려한다. 따라서 자연 체면과 결치매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결치매와 체면에 얽매었던 허다한 실례를 우리는 우리의 양반조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내일 당장끼니를 굶더라도 양반인 체면에 생업을 거부하고 비새는 방에서 사시오경만 읊조리는 남산골 선님이야든가 빛내면서까지 관혼상제의 의식을 상대히 치르던 그들의 폐습이 바로 그 일면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한 위선과 허세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고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그러한 노력 자체는 자신이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 즉 어떻게 생애하여야 하는가 하는 규범의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까닭에 인간적인 부끄러움을 될수록 씻어내고 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아나감은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부끄러움을 씻어내야 하는 불우적인 감정이지만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그 자체는 건전한 인간의 정서 반응으로서 소중한 것이다. 부끄러움도 개인차가 많아 남보다 이상이 높고 곱이 많은 완전주의자일수록 자기의 현실이 그러한 곱에 비추어보아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될때 그러한 제모습이 남에게 드러나진다면 부끄러움을 크게 느낀다. 그러나 곱도, 이상도 없는 인간이라면 그러한 제모습이 남들 앞에 폭로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사실상 부끄러움을 느끼는 인간일수록 양심이 있고 이상이 있어서 오히려 부끄럽지 않은 인간이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자일수록 양심도 이상도 사라진 부끄러운 인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육이 오즈음 같은 세대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이다. 마땅히 부끄러워야 할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뻔뻔하다고 한다. 뻔뻔한 인간은 무엇인가 잘못 되어있다. 뻔뻔스러운 몰염치한 인간은 이미 인간이라 할 수 없으며 어느 의미에선 동물 이하라고도 할 수 있다. 제 스스로의 행동이 옳지 못하다는 자각이 있으면서도 남의 이목에 상관없이 몰염치한 행동을 할때 그것은 비인간적이며 그러한 자각조차 없을때 그것은 동물들이나 것이다. 신문과 사회면에 우리는 매일같이 끔찍한 범죄소행을 흔히 본다. 그런 불의의 인간은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고 인륜에 수렴인 비도덕형의 이상성격들이 많다. 일부에선 모든 사회 범죄의 요인을 그 사회의 내재적인 병폐에 돌리는 해석이 유행되고 있으나 그것은 역시 앞면의 진실밖에 되지 않는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 제 욕심대로 일을 해치우는 그들은 남의 이목과 제 체면에 아랑곳하지 않는 한없이 위험한 존재들이다. 다른 한편, 사람이 나이를 먹어 노인이 되면 뇌의 기능이 약화되어

서 점차 수직심이 없어지고 엄치없는것을 하게된다. 우리는 이것을 노망(老妄)이라고 하거니와 이런 상태에서는 사람이 자기 행위에 대한 본별이 흐려지기때문에 부끄러움도 창피도 모르게 된다. 노인이 아니라도 뇌의 병으로 뇌조직이 상했을때 우리는 또한 엄치없는 인간을 본다.

부끄러움이 우리의 도덕심과 관련되고 그러한 도덕심은 뇌의 일정한 부위조직의 기능과 관련이 있음을 알았다. 그런데 그러한 뇌기능의 변화없이도 창피를 모르고 부끄러움이 없는 인간이 있음을 우리는 종종 보아 왔다. 꼭 후안무치(厚顔無恥)한 범죄자가 아니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범범에만 걸리지 않았다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부끄러움이 없이 해치우는 사람도 드물지 않다. 사실은 그런게 꼭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 자신의 얘기도 될 수 있음이 보다더 솔직한 고백이라 하겠다. 우리가 자기비판도 반성도 참된 지과도 없이 생활한다면 누구나 저열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그러한 인간의 저열화 내지는 동물화 현상이 늘어가고 있음을 본다. 사회적 흥남이 그러한 비인간화의 길로 기울고 있을때 개인의 사욕과 쾌만과 과실은 이미 준엄한 양심의 심판도 받지 않게 되고 그러한 흥남에 휩쓸려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인간적인 갈등이나 고민도 없게 된다. 오히려 그러한 사회나 세력에서는 끝까지 자기양심과 자기 이상을 고집하는 이에게 더욱더 가증한 고민이 있고 갈등도 있다.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도 그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얼굴을 들고 대로를 활보하는 인간들이 득실 거린다면 그 사회는 이미 건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인간들이 몰염치가 그들 개인의 어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질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잇갈리는 각 개인의 이해독심을 조정하는 사회정치가 무너지고 기강이 해이되어 그 권위와 통제력을 잃은데서 온다고 보겠다.

체면과 예의를 숭상하고 삼강오륜으로 굳게 다져진 전통적인 윤리관이 점점 희박해지고 이질적 이국 문화속에서 그를 채 소화하지도 못하고 그러한 속에서 자기 위치를 바로 잡지 못한 혼돈한 현실적 상황이 바로 수직심을 가물거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부끄러움은 남이 자기의 소행을 평가하는데 대한 정서 반응이기때문에 그러한 남의 이목이라고 하는 외면적 강제력이 그 권위를 상실할때 또한 소실 되는 것은 당연하다.

제 3자가 사회규범과 대의를 이미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제 3자 앞에 부끄러워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부끄러움이 없는 뻔뻔스런 인간이 모인 곳에는 의리도 인정도 없이 범죄와 살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전후택세에 있는 살벌한 약육강식이 자행된다. 그러기에 그것은 반문화적이며, 원시적의 역행이며 인간의 동물화이다. 따라서 끝내는 자멸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러한 비인간화과정을 막을 것인가? 그것은 인간에게 다시 수직심을 일으키게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부끄러움을 느낄때 우리는 자기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있다. 자기 부족함의 자각은 곧 제 본수를 안다는 것이요 그 본수에 맞추어 살아갈때 흔들림없는 제 바른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각자가 제길을 알고 저만이 갈수있는 그길을 걸어갈때

역설적인지는 몰라도 부끄러운 감정은 최소한으로 줄어돌고 뻔뻔한 인간의 제 참모습을 찾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본상에 충실하는 최선의 길에도 부끄러운 느낌은 비록 적을 망경 끝까지 찾아 다닐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으로 사는 한 부끄러운 일을 항상 저지르기 마련이기때문이며, 그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또한 인간다운 일이기 때문이다.

메트로폴리탄보험

안녕하십니까?

저희 메트로 폴리탄 보험회사는 120년의 오랜역사와 5천만명이 가입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회사로서

* 생명보험 개인퇴직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저축성교육보험
세금공제연금

* 건강보험 * 자동차 보험

* 가옥 보험 이러한것이 저희의 주된 취급업종입니다.

* 자동차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최고 100만불까지의 여러종류가 있으며 저렴한 보험료로 선택은 여러분의 절대적 권리입니다.

* 사업보험은 특정한 관계를 맺고있는 전문보험인에게 의뢰하여 중간에서 성실하게 봉사할것입니다.

* 보장된 내일의 생활을 위하여 여러분의 곁에서 『서비스』는 계속 될것입니다.

보험 대리인 안 창 영 드림



Metropolitan
Metropolitan really stands by you.
LIFE/HEALTH/AUTO/HOME/RETIREMENT

827-0347(사무실) 431-9192(집) 584-7121(타)
ROSE HILL OFFICE PARK 12636 N.E. 85th St. KIRKLAND, WA 98033

곽기섭

전후 독일청년들 사이엔 다음과 같은 신조가 몸에
붙어 정도도 철저했다고 한다.

즉, "돈을 잃은 것은 전혀 잃은 것이 아니다", "용기
를 잃은 것은 많은 것을 잃은 것이다" 그러나 "명예를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라고

실상 돈이란 것은 들고 도는 것이고 내 것을 남이 훔쳐
갔다 해도 사회적으로 볼 때 그 돈의 가치가 전혀 상실
되지 않는다.

또는 제 2차대전으로 독일이 져버리게 되었지만
그것은 젊은이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표시하는 것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기
예를 꾸는 고통을 참고 들고 나가는 용기가 필요했다.

흔히 "돈은 만물의 영치"라고 거리의 사람들이 말
하고 있고 현실에 대처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도 믿고
있는 사실중의 하나로 되었으나 서독 사람들은 "인내
야말로 세계를 지배한다"는 격언을 좀더 충실히 이행
했고, "의지력은 힘"이라는 진리를 좀더 일찍 어득
했었다.

그러나 가장 큰 정신적인 "에너지"는 역시 스스로의
명예, 체면, 자존심을 무겁게 여기는 데도 있다.
스스로의 명예나 체면을 중히 여기고 자존심을 살피려
면 모든 언동이 그만큼 책임있고 걱정해야 한다.
개인이 스스로 명예를 신성시 한다는 것은 곧 우리 한인
사회나 조국의 명예를 지키는 길에 바로 통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독일 청년들의 신조는 "에스
포인츠"의 좌우명이라는 "명예, 조국, 의무"라는
세마디와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정신적 자세 역시 이면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용제하기 힘든 자본주의 사상이 우리 생활
주변에 깊게 자리하고 있지만 참된 미국정신, 가령
"독립과 평등"을 기동으로 하는 개혁자 정신이란 가,

"영광도 썩은즉"이 그때로부터 함양에는 명예에 대한
관념같은 것은 우리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우리 한인사회 내에 있었던 무책임한
언동과 파경들은 다 따지고 보면 자기 스스로의 명예
를 중히 여기지 않는 데서 출발한 것이었다.

엄치 불구하고 권력의 나무에 기어오르겠다는 생각,
체면이나 신의같은 것은 아랑곳없이 돈부러 벌자는 생각,
나만 잘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등이 과거부터 내역은
구습의 잔재요 본질적인 병폐가 아닐까?

좀 오래된 이야기요 이제는 잊혀졌고 또 그런일도
있었더냐는 식으로 모르고 지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의 과거 족을 돌아다 보면 한 사람의 그릇된 판단
과 우매한 행동으로 이런일도 있었다는 것을 상기해보고
반성해 보고 싶어 한가지 들려주어 예를 들자면, 미국의
어느 상원의원이 상원연설 가운데 "한국에 가서 눈을
감으면 그대 입속에 곰이들 뱉어간다."라는 오지에
발언을 했었다. 과심한 일만봐요, 지나친 표현임엔
틀림없으나 왜 그러한 말은 우리 온 한국민이 들어야
했었던가? 그때 유숨에 나가있던 보좌관이만자가
미국 으익 82대를 골짜기 잡아 삼켜었다가 돌동이 난
다음 전상보고를 하는 가운데 나온 이야기였다. 이때
나라의 체면은 말이 아니었고 직있는 우리들도 부끄러울
정도였다.

"돈", "용기", "명예" 이중에서 어느것을 더 중요시
해야 하는나의 손서를 제대로 잡았기에 독일은 일어났
고 제대로 잡지 못했기에 우리는 아직도 가난의 굴레를
알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수있지 않을까? 미국속에
살고있는 나를 비롯하여 우리모두의 정신상태를 진단해
볼 필요는 없는것일까?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웁시다!

김동진 목사
(한인 루터교회)

떠난들 같은 하늘 아래에서 그 아득히 새망을 받은
들 그 땅덩어리에서 그 땅이고 보면 아무리 근대해도
50보 100보의 차이밖에 더 있을까마는 "얼드미엔 로가
달는곳"이란 말이 이것을 두고 하는말이 아닐까한다.
게다가 아주도 아닌 한시간 내의 거리이고보면 실은
가느니 오느니 할것도 못된다. 다만 가까운 이웃이
면 형제보다 낫다고 하였으니 따뜻한 이웃이었던 한곳
에서 고민들을 떠나 새 이웃과 더불어 살게된점은 그때
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운한 여운을 남기게 된다.

돌이켜 지난 3년동안은 이곳 이민생활의 초년생으로
서 배우게 된 큰 덕을 입었다면 그때도 있을수 없는
신세를 진셈이라, 여타가지 있을수 없는 추억들이 많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속에서 끈질
긴 의지와 굳은 신념을 통해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자신
을 채찍질 해보기도 했으며, 반면에 그저 나날을 소일
하며 땅에 코를 대고 햇볕에 잠든 강아지의 모습도 일면
엇볼수 있었던 점들, 많은 삶의 영감들을 허투로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나는 자체가 또 헤어져야 함을 전제도 한것이라면
때로는 만나는 것이 두려워질때가 있는 것이다. 만남
밖에야 차마 만나지는 피동적인 자세도 이룰며 살다
갔으면 하지만 이것은 육십일론, 실지로는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연속성속에서 버려질
희비 쌍곡선이 다 이루어질때, 때에 따라서는 울고 또
때에 따라서는 웃기도 하나 역시 꺾질이 깨어질때의
아픔은 알고도 말할수 없는 침묵으로만 입증되는 그
순간이 아픔에 절정을 이루리라 본다.

그러나 어머니 모택을 떠나는 그 아기의 생애는 오
리며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삶이 약동하는 것이 아닌가,
엄마도 살고 아기도 이렇게 살아가고 아프고 괴로웠던
시절을 잊은듯 있을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엄마가 살고 아기도 살아 추억이란 심연속에 마음껏 만
끽할수 있으니 말이다.

출거움을 가질수 있음도 여기에 있다아겠다. 부더
아기가 잘 자라다오, 너는 내 핏줄이오, 내 살과 뼈
니 내가 잘됨이 내 잘됨이오, 내가 못됨이 내 못됨이
니, 제발 서로에 밝은 앞날에 기약을 잊지 말아 줄것
을 당부하는 것이다.

사업체 매매 CENTURY 부동산

400 BOREN AVE. SEATTLE
☎ (206) 223-8949
SAM YUN 878-3647
SUSAN KIM 392-8535
이양남 246-5388

- 세탁소 : (5일영업, 현주인 30년) 집세싸고 리스 좋음. \$7만5천 + 재고, \$3만8천 DN. 년매상 \$6만5천
- 세탁소 : \$7만9천, \$3만6천 DN. 년매상 \$7만 집세싸고 리스 좋음.
- Shoe Repair: Mall 안에 위치 - 6일 영업 \$4만9천 Cash, 년매상 \$5만5천, 년수익 \$3만
- Tavern: 전망, 리스, 렌트 좋음. \$11만5천 + 재고, \$3만5천 DN. 월매상 \$2만2천5백
- 모 델 : 34 Unit 9년된 건물 \$49만. \$14만 DN. 년매상 \$12만 이상
- 2층 3BR House : \$5,000 DN. Assume Loan \$6만6천. 월부금 \$6백80. 3년된 Federalway
- Deli Market : \$19만 + 재고, \$8만 DN. 월매상 14만 + Gas Comm.
- 세탁소 : \$15만5천, \$6만 DN. 소필센터내 있음.
- 기 타 : \$5천 다운하고 Payment만 떠맡을수 있는 집있음.

린우드 B.B.Q 센터 불갑비, 냉면(한식일체)

영영업시간 : 오전 11시 ~ 오후 10시
카테일라운지 : 오전 11시 ~ 새벽 2시
(7 DAYS A WEEK)

★ 각종 파티, 연회식음비, 넓은 파킹장 준비
ORIENTAL B.B.Q CENTER
3828 196th St. SW.
Lynnwood, W.A. 98036 ☎ 771-3700

윤병설

이세상의 인간은 어느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에 태어 날때 독특한 의미와 보람(worth)을 가지고 탄생한다고 한다. 그러기에 일반사람에 성격 또는 필연적인 작동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곧 알게된다.

이같이 개개인이 다른 성격과 인격이 혼합함으로써 하나의 집단 사회와 국가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사회나 국가가 다면적 행태의 집단책임에 돌림없다. 사상적 체계가 다르고 종교적 의식이 다르다. 이와같은 복잡성 예두리 안에 한 개인의 순수한 의식이 받아들여지거나 승화되거나 집착되거나 이에 상당하는 어떠한 과정이 없이는 결코 어떠한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기에 인간이 다면적 사회속에 보람된 삶을 영위 하는 데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절대적인 요소인 것으로 리카 후랭크는 말한다. 후랭크는 각 사람이 지니고 있는 보람이란 유니크한것으로 그 보람이 역시 각 사람마다 독특하다고 한다. 그러기에 이 보람을 하인이 선물로 안겨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 개개인이 발견하고 계획하는 독특한 의미와 값진 진주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같은 독특한 보람과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표현적으로 그 활동을 의미하며 그 활동 안에는 목적과 의식행태에서 미래를 추구한다. 뚜렷한 목적과 희망이 없을때 외로운 상황에 직면하면, 자기 능력상실을 가져오는 예를 후랭크의 글 내용에서 알수있다.

후랭크는 성장하여 빈 대학교에서 의과를 전공하고 그 다음 정신과 의사가 되었다. 제 2차 대전때에는 유대인이라는 죄명으로 나치 치하에서 3년동안 3곳의 수용소를 전전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본이다. 후랭크는 말로 명언할수 없으리만큼 비참한 수용소 안에서의 생활중 많은 사람이 자살을 했고 병에 시달려 죽어갔지만, 그러나 비참한 죽음의 공포속에서도 보람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삶의 투쟁

을 한 사람은 생존하여 전쟁이 끝난후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돌아왔다. 그러나 생활속에서 보람을 갖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한 사람은 다 세상을 떠났다. 이같이 고귀한 삶에 진리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사도를 통해 이렇게 전해주신다. 내가 사는것도 죽는것도 오직 주를 위해

마음에 뜻과 목적과 소망을 두고 하산 말씀이다. 목적이 뚜렷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졌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참 행복이요 최상의 승리자일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이 지니고 있는 좌절감에서 오는 정신적인 문제, 궁핍에서 오는 심리적 갈등으로 나타나는 우리들의 주변 현상은, 서로의 의견과 불신, 배신과 야유, 그리고 음주, 도박, 청소년 범법등 심각한 문제가 날로 늘어나며 특히 우리 이민 교포사회 주변에 더욱 그 양태가 전하게 느껴진다. 다면적인 상황속에 이질문화도 오는 문제까지 겹친 혐오증의 부작용과 투쟁을 해 소하는 비결이 시급히 아쉽고 발동에 떨어진 과제인가 같다.

이민생이라는 참단을 걸으며 그 진감태의 굳은 미래 의 의지를 모작화 되기전에 어두움이 짙어지는 현 시점을 우리 모두가 냉정히 판단하는 지혜와 자신에 대한 모순에 호된 체력을 감수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와 이해를 선용하며 참된 보람의 삶을 찾는길이 새 시대가 요구하는 명령이리라. 나 개인과 모두를 위해 헌신 봉사의 참된 도리를 찾으려면 자신을 투병으로 거울앞에 비춰봐야 한다. 결코 나자신을 잃어서는 안되리라. 맹자의 제자는 말하기를 이사가는 사람이 아내를 잃어버리고 갔다는 말에 조용히 들면 맹자 앞으로 짐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다고 대답했다. 간단한 대답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기본뜻의 경중임을 돌림없다.



by Chungmi Kim.

LIVING IN DREAMS

In Lake Gibbs, Washington, I met some people who lived out in the woods.

Building a boat in the forest, they lived in dreams. "Some day we wanna sail way around the world," said the man, brightly smiling. In his eyes, blue as the ocean, I saw the sails flapping. The children looked up at him with angelic smiles. In their eyes, blue as the sky, I saw the mirror to a Magician's door.

In Hollywood, California, I knew some people who lived on the city boulevard.

Slaving themselves to their careers they too lived in dreams. "Some day we wanna buy a big house and a fancy cadillac," said the man proudly grinning. He was a janitor, his wife a nurse. The children watched the house killing time with toys and guns. In their eyes, cold as the snow, I saw deer at the hunter's ritual.

Whichever way I dream, I know one thing for sure to keep my heart centered

in God.

July 19, 1983

Mr. Paull H. Shin P.O. Box 24992 Seattle, Washington 98124

Dear Mr. Shin:

The subject of TIME's June 13 cover story was the extraordinary diversity of the new wave of immigrants to Los Angeles County, a diversity of languages, cultures and lifestyles. Mostly, we said, the immigrants are assets to the community and to their adopted country. The Koreans, in particular, are energetic, hard-working and ready to endure adversity in pursuit of the American dream.

But as at other times in our history, the new immigrant influx has also rekindled some old animosities, conflicts and resentments. As an example of prejudices reinforced under the pressures of co-existence in a totally new environment, we cited the uneasy relationship between Japanese and Koreans, but the disparaging attitude of some Japanese toward Koreans, described by Professor Kitano, is emphatically not one any of us here endorse or support. We are sorry, however, you feel our references to Korean immigrants had a negative impact, and we thank you for giving us the opportunity to reply directly to your concerns. Two relevant letters are being published in our July 4 column and two more are scheduled for the July 11 column. We hope you have a chance to see them. Please be assured that your comments were circulated among TIME's editors for their consideration.

Sincerely,

Isabel Kouri

Isabel Kouri

IK:cs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움시다!

Time for the 'Mortimer Snerds' to unite

TIME MAGAZINE has thumbed its meganose at the protesting Korean-Americans who were outraged by its Time-esque, race-baiting portrayal of the struggling immigrant community in the June 13 edition.

The next issue published two one-paragraph letters from the collectively maligned Korean Americans—sans an editorial apology or corrections.

The Koreans don't matter, its lofty silence in the face of torrential outcry seemed to demonstrate to them.

The week that followed the Timely insult loomed as an electrifying period in Korean American experience.

The Time story flatly said, among other things;

@ "And everybody picks on the Koreans. Says UCLA Sociologist Harry Kitano (sci.): 'They regard the Koreans as the Mortimer Snerds of America. They cannot learn the language, their food smells and they cannot express themselves.'" (Kitano denied ever having called Koreans "the Mortimer Snerds of America.")

@ "Koreans look down on blacks and Chicanos."

@ "Young Koreans are more likely to commit crimes than any other Asian nationality."

Like a shock wave, the Korean-Americans reacted in fury and in unity with other diverse ethnic groups.

The Snerds of America—to their own surprise—rose up and talked back in English.

At least twice they picketed Time's Los Angeles bureau in Beverly Hills, waving placards saying, "We Won't Be Divided," "No More Lies," "Stop Racism in the Media."

Los Angeles' three Korean-language dailies bannerlined the mounting outcries of angry readers daily.

Letter-writing drives were launched in the nation's Korean settlements—from Los Angeles, to San Francisco, to Seattle, to Chicago, east to Washington, Philadelphia, Baltimore, New York, and south to Atlanta and New Orleans.

Spearheading the drive—unprecedented in the 80-year year of Korean immigration—was a fledgling civil rights group called the Korean American Coalition (3963 Wil-

shire Blvd., #149, Los Angeles, CA 90010). Its president, law school student Tong Soo Chung, led a six-member KAC delegation to the Times bureau with a five-point demand including a request for a follow-up story admitting obvious errors and inaccuracies in the article.

The other five were community lawyers Tong Sung Suhr and William Min, school teacher Suzie Oh, youth worker Jane Kim, and architect David Hyun, KAC board chairman.

The KAC group demanded that the magazine also publish a fair sampling of letters it receives, provide space for a counterpoint from an objective source and meet with Korean groups to explain the genesis of the article.

If these demands were not met promptly, the group vowed to launch a nationwide boycott campaign together with other ethnic minorities.

"What we are interested in is not for you to 'buy' our side of the story," said Chung. "Rather, we are interested in getting an unbiased and sensitive reporting of a very complex inter-relationships among the various ethnic groups in Los Angeles."

The Timemen stuck to their New Ellis Island story as being "fair and balanced" and rebuffed the demands.

The anger soon turned into calls for action reminiscent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in the 1950s that few Korean-American newcomers remember.

Within a week, every Korean resident association and almost every chamber of commerce throughout the country rose, swearing to boycott Time until they receive a public apology from the weekly magazine empire.

And the cover story unwittingly may have awakened a sense of unity among the fragmented and fractious Korean settlements in the new land.

A spokesman for the Chicago Korean Association disclosed last week that representatives from Chicago, New York and Washington will meet to organize a national civil rights group to resist anti-Korean and anti-Asian racism in the national media.

In San Francisco, Korean students on the UC-Berkeley campus called on the Bay area Korean organizations to write letters to the magazine. Meanwhile in San Bernardino, Korean merchants decided to stop carrying Time in their news racks.

Thousands miles west, Korean churches and resident groups responded too.

Other Asians—Chinese, Japanese, Filipino, and Vietnamese—as well as a large number of Mexicans also joined the anti-Time pickets outside the Time office in Beverly Hills.

Professor Kitano—whose quotation in the story became a focus of strong emotion in the Asian community—told Asia week, "That was a complete misquote, and it was out of context."

He said his interviewer later "told me that all the material had been turned over to the next echelon at Time. Apparently, somebody further up the ladder decided to turn the story around to sound negative."

Kitano also told Pacific Citizen he disagrees with the Time assertion that the different groups among the Asians look down on each other. "There is more of a pan-Asian feeling now in Los Angeles than there has ever been before."

He has met with a number of editors from Los Angeles-based Korean newspapers to explain the mix-up.

"My strongest support has come from the Korean students association at UCLA, those who know me and have taken my classes. They know that what was said in the magazine is totally different from what I've been saying in class."

"It makes me wonder if Time had intended all along to turn the piece against immigrants and minorities."

Palo Alto psychiatrist Allan Seid, founder of the activist Asian Pacific American Advocates of California, also sharply took issue with Time's focusing on alleged contempt among Asian ethnic groups. "Going through Los Angeles," he told Pacific Citizen, "I've found a definite feeling of a strong need for unity, not only within each ethnic group but also in collaboration with other ethnic Asian groups."

Time reporter Laura Meyers told Asian Week that the article reflected extensive research and a large number of interviews with Asians in Los Angeles, as well as police, church officials, ethnic newspaper editors, television station executives and other sources.

"A lot of people have tried to make it sound like we were saying negative things about the various ethnic groups, but we were just writing what the people told us."

한국서적

Korean Book Center

취급품목

- ◎ 소설·잡지·종교서적·음악·미술·취미 서적·월간지·주간지·무협지·만화(대여 및 판매)
- ◎ 한국 TV 비디오 테이프 대여 및 판매 (연속극·영화·단막극·쇼·코메디 등)
- ◎ 카세트·트랙·레코드판
- ◎ 장식용 액자·성화·족자·교회용품·선물용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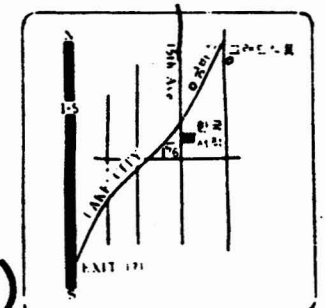
*비디오 테이프 회원 모집중

(1년 회원권)

8016 15th Ave. N.E. Seattle, WA

584-8292(타코마) 524-2544(씨애틀)

전화로 주문하시면
우편배달 해드립니다



월간잡지 정기구독
하는 분에 한해
모든 책을 10%
할인해드립니다

KOREAN CULTURE CAMP

Korean Culture Camp was held August 1-5, 10:00 A.M. - 3:00 P.M. A program for parents was held Friday evening, 7:00 P.M.

Kindergarden through 6th grade sixty seven children attended camp. Classes included cooking, dancing, taekwondo, crafts, language, and culture. Camp was held at the First Lutheran Church of Bothell, who donated their facilities for the week.

Ten mothers of adopted Korean Children planned the camp, beginning in February. The second annual camp is already being planned for Aughst, 1984.

Cooking class included Mandu, Kimchi, Bulgogi, Kim-pahp, and rice. The classes planned and cooked a Korean luch for all the students, aides, and teachers on Friday.

Culture class included films on Korean holidays, slides of everyday life in Korea, teaching and playing Yut history and geography of Korea, explanation of customs, and reading of folktales.

Arts and crafts consisted of making masks, abacuses, drums, Yut games, and name banners(in Korean) and also silk screening T-shirts with a camp logo. Each child received a name tag with his name in English and Korean.

Taekwondo was taught four days by students and teachers from Kim's Taekwondo, especially the Bailey family.

Dancing was taught and demonstrated by Mrs. In-Hee Treadwell and her daughter, Gin Hee on Tuesday, August, 2.

Singing of Korean songs was taught by Mr. Doh Bong Kim of Catholic Community Services, who was assisted by teenage helpers.

Language was taught all week by Mrs. Young-Hee Lee.

Films and printed materials were supplied by Korean National Tourism Corp. and Ehrig and Associates.

Mrs. Paula Ferguson and Mr. Dan Tadema, both Koreans who were adopted at age 2- now are adults, Sopke to the children on their experiences.

We had over 30 volunteers to hel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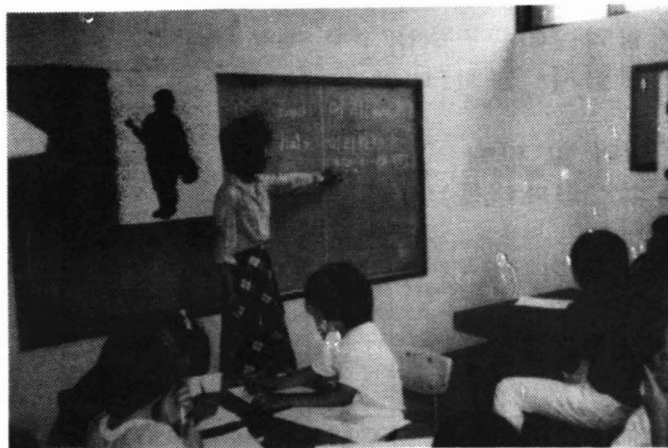
during the week. most of these were parents and older brothers and sisters.

We planned the camp in order to teach our adopted Korean children about their heritage and cause them to be proud of their Korean culture.

We feel that the camp was very successful and we are grateful to those in the Korean Community who helped us. We look forward to an even better camp next year and would

like to invite more Koreans to participate in the planning of the camp.

Anyone who wishes to help may contact Sandi Mehl, 16621 28th Dr. S.E. Bothell, WA. 98102, 481-5660.



Mrs. Young-Hee Lee taught language all week.



TAE KWON-DO WAS A Popular CLASS

K.P. 번역원

〈연방법원· 이민국 인가〉

- 서류· 책자 고급번역/작성
- 사건 조사·처리
- 이민·법률문제 해결보조
- 법정·이민국·각기관통역
- 유능한 전문변호사 선정
- 각종 상담

3223 N.E. 104th St.,
Seattle, WA 98125

(206) 527-8094

K.P. Translation Services
(Translator English - Korean)

알리는 말씀

워싱턴주 한인간호협회에서는 주정부 RN 면허시험 준비반을 다음과 같이 개강하고자 하오니 관심있으신분은 많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강의명칭 : RN State Board Test 를 위한 시험 준비반

기 간 : 1983년 10월 초순부터 10주간

기타 자세한 내용에 관한 문의를 워싱턴주 한인간호협회(821-9576)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3. 9월

워싱턴주 한인 간호협회

『편집후기』

**** 여름동안에 있었던 여러가지 많은
한인회 활동, 교포사회의 동정들을
모두 기록해 넣으려 했으나 지면의
제약을 받아 충분히 신지를 못했다.
독자들의 양해를 바란다.

**** 그동안 능란한 솜씨로 한인회보 원고
타자를 담당해 주었던 사무실 직원
권현미양의 결혼 때문에 회보 제작이
의외로 많은 시간이 걸렸다. 부족한
시간을 메꾸어 주느라고 근무시간후
집에서 타자를 해준 영사관의 Ms 정
두선씨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한인회보 1983년 제5호
발행인: 신 호 범
편집인: 박 건 흥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2611-125th Street Street N. E.
SEATTLE, WA 98125

P. O. BOX 24992
SEATTLE, WA 98124

TEL: (206) 362-4500

한인회보

표지의 『한인회보』 제자:

한인사회를 위하여 헌신, 사랑, 결양,
술선수범으로 귀감이 되었던 고 이창희
초대 한인회장의 생존시 휘호

조병규 치과

시애틀

월, 화, 목, 토
(9시~6시)

367-5570/776-8512

페더럴웨이

수, 금(10시~7시)

838-3180(시애틀)

927-4996(타코마)

성형수술 전문의

DAVID A. EKLAND, M.D.
CERTIFIED-AMERICAN BOARD
OF PLASTIC SURGERY

쌍카풀 수술

유방 확대

각종 교정성형수술

126 AUBURN AVE, AUBURN, WA

939-1440

이 규 영 계 리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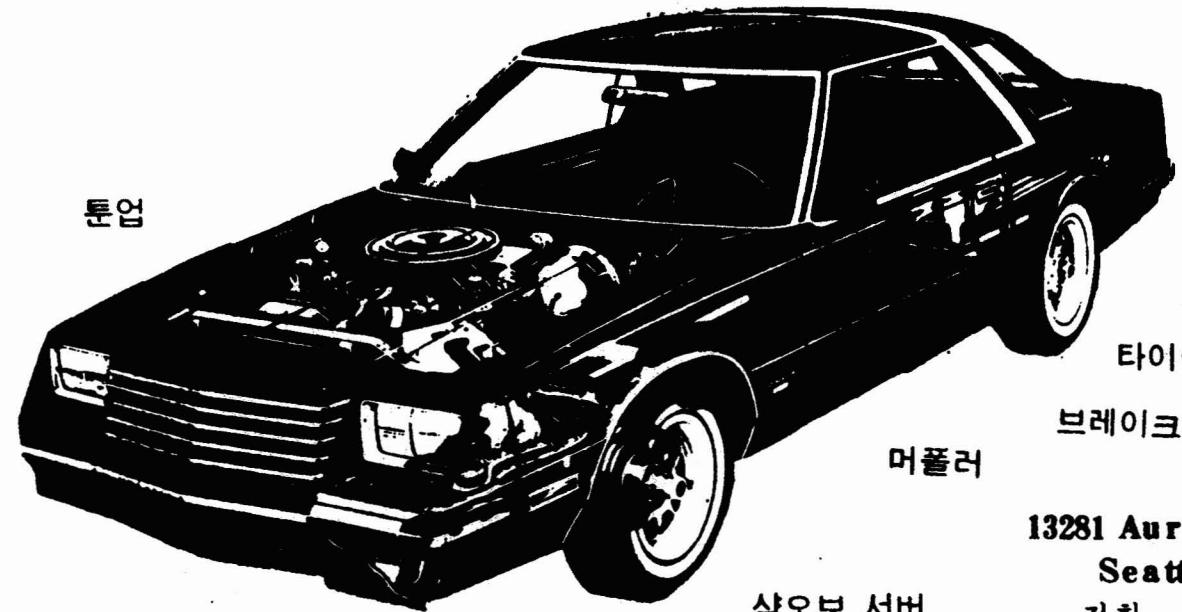
귀중한 재산을
소중히 정리해드립니다.

- ※ 컴퓨터로 장부정리
- ※ 퇴직 연금 상담
- ※ 일반 인컴 택스
- ※ 세무상담
- ※ 중소 기업 장부정리
- ※ 공증업무
- ※ 기밀 절대보장

623-4181-3

2809 4th Ave. Seattle

LEE'S 타이어 및 자동차 종합 정비센터



통업

타이어

브레이크

머플러

13281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전화 362 ~ 4449

삭오브 서버

프론트 엔드얼라인 먼트

트랜스 및송

모두 완벽하게 고칩니다

荣味亭



- 최신식 완전 자동냉면기계 설비
- 대 연회장 완비
- 넓은 주차장 시설
- 나이트 클럽(김용세와 그의악단)

※ 가족외식 ※ 친목회식 ※ 귀한손님접대 ※ 축하연등
모임에 따라

10 명에서 150 명 400 명 까지

한자리에 모실수 있습니다

YOUNG ME RESTAURANT

623-3112

7 DAYS A WEEK 11:00 AM 2:00 AM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 98124

HAHN, MAN-SOP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

01146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